

	동김제농협 최진오(60)	백구농협 장승환(54)	백산농협 강원구(63)	용지농협 김웅(47)	진봉농협 임영택(66)	동진강남농축협 김두호(63)	전북한우협동조합 김희동(61)	김제원예농협 김광식(61)	김제수협 김영주(58)	김제산림조합 함길권(59)
완주	고산농협 손병철(63)	구이농협 최만열(60)	봉동농협 김오희(64)	삼례농협 강신혁(56)	상관농협 이재욱(57)	소양농협 유해관(61)	용진농협 이중진(56)	운주농협 정성권(57)	이서농협 송영욱(57)	화산농협 김중채(57)
	백운농협 김연태(62)	부귀농협 김영배(62)	진안농협 김문중(72)	무진장축협 송제근(68)	전북인삼농협 신인성(46)	진안산림조합 송윤섭(60)	구천동농협 김성근(56)	무주농협 곽동열(59)	무주산림조합 박철수(65)	
진안	장계농협 곽점룡(65)	장수농협 김준준(63)	장수사과원협 최연수(65)	장수산림조합 한상대(55)	임실 정철석(58)	오수관촌농협 최동선(59)	임실농협 한득수(59)	임실축협 이창식(55)	임실치즈축협 정희석(64)	임실산림조합
	구림농협 김순용(55)	동계농협 양준섭(65)	서순창농협 설득환(65)	순창농협 김성철(59)	순정축협 고창인(61)	순창산림조합 김정생(60)	고창농협 유덕근(68)	대성농협 박운규(61)	선운산농협 김기욱(52)	
장수	해리농협 김갑선(68)	흥덕농협 백영중(67)	고창부안축협 김사중(76)	고창수협 김홍(62)	고창산림조합 김영건(55)	계화농협 이석훈(63)	남부안농협 최우식(61)	변산농협 김병식(64)	부안농협 김원철(71)	부안중앙농협 신정식(58)
	하서농협 기세원(58)	부안수협 송광복(70)	부안산림조합 오세준(75)							
순창										
고창										
부안										

### 전북지역 조합장선거 최종 투표율 81.2%

대구·경남·광주에 이어 4번째로 투표율 높아... 지난 2회 조합장선거와 동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실시됐다. 이날 투표 마감 결과 전북지역 투표율(잠정)은 81.2%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한 조합장선거 투표 마감 결과 전북지역 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88%), 경남(82.8%), 광주(82.6%)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투표율은 전국 평균 79.0%보다는 1.6% 포인트 높았으며, 지난 2회 선거와는 동일했다. 전북지역 전체 선거인수는 총 20만 1,552명으로 이 중 1,613,4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선거인 16만 1,627명 가운데 13만 7,300명(82.7%), 수협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거인 1만 7,699명 중 8,294명(77%), 산림 조합장은 2만 4,756명의 선거인 가운데 1만 7,829명(72.0%)이 각각 투표했다. 이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 도내 조합장 선거 사건·사고

#### 순창서 투표 나선 조합원 트럭으로 들이받아

50대 3명·60대 3명 등 총 20여명 사상자 발생  
경찰, 트럭 운전자 불구속 입건... 운전미숙 추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선 조합원들 1t 트럭으로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특이점이 없어 차량 조작 미숙에 따른 사고로 추정하고 순창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부표를 하기 위해 건물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유권자 B(78)씨 등 20명을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1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자를 연령대로 분류하면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0명, 80대 3명, 90대 1명이다. 당시 현장에는 '디콘(D)' 형태로 된 공간에 40여명 정도가 있었고 이 중 일부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시스